

콜럼버스와 웹젠 그리고 저자의 성공학 키 노트



《성공의 방정식》 김영한·웹젠 공저 | 넥서스 | 224쪽 | 값 12,000원

“이제 우리의 성공 노하우를 상품화할 때가 됐습니다. 세계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나 남미 등 오히려 우리 모델을 좋아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김영한 씨(55)는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직접 분석하기도 한 《성공의 방정식》은 두 가지 큰 틀에서 기획됐다고 말한다. 우선 성공한 국내기업의 모델을 찾아 그 성공 노하우를 동남아나 일본, 중국 등지에 수출해 보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좌절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희망은 벤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는 것이었다. 우선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성공원인을 분석하는 글을 쓰고 그에 맞는 국내 벤처기업을 찾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다 알려진 리니즈(엔씨소프트)를 두고 뮤(웹젠)에 호기심을 가졌던 이유는 세 명의 설립자가 모두 학벌이나 재산 등 기존의 패러다임에 의존하지 않은 고졸출신 게임광이라는 점과 제품개발과 동시에 해외진출을 한 그야말로 글로벌한 모델이라는 것이었다.

비록 게임이라는 게 낯설기는 했지만 한 기업의 성공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그다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다. 김 교수는 컴퓨터 세일즈맨으로 시작해 한국휴렛팩커드, 삼성전자에서 마케팅 분야를 총괄한 경험이 있었고 현재 마케팅 MBA(주) 대표로서 기업체의 경영 컨설팅과 실무 강의를 1만여 시간 동안 해오고 있다. 《성공의 방정식》을 작업하면서 놀라웠던 건 다른 데 있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새로 태어난 것은 아닌가 하구요. 나이 50이 넘어 게임이라는 새



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도 그렇지만 그동안 책 열 권을 내면서도 깨닫지 못한 ‘읽고 싶은 책’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은 그가 그동안 썼던 책에 비해 진행과정부터 특별했다. 단지 한 명의 저자나 혹은 기획자에 의존한 게 아니라 저자, 기업, 기획자, 출판사 이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어울렸다.

처음에는 단지 수동적으로 인터뷰에 임하던 웹젠 측에서도 자신들의 회사를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나중에는 공동필자로 참여했다. 덕분에 김 교수는 뮤라는 회사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

“처음에 제가 기획한 내용은 단지 콜럼버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글을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판기획 전문회사인 ‘책아책아’ 쪽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책이 아니라 독자들이 읽고 싶은 책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자로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도 나름대로 이 바다(출판)에서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책아책아’ 하현주 사장이 내놓는 기획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다. 남들을 분석해 보기는 했지만 자신이 그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해 본 것이었다.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단지 하나의 성공사례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콜럼버스와 웹젠 그리고 저라는 세 가지 사례를 대입한 것입니다. 특히 4장 ‘나의 성공 방정식’은 제가 이 책을 진행하면서 겪어야 했던 사례들을 적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저희들의 평가지만 그럼으로써 이 책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죠.”

출판사의 제의로 저자인 장점을 살려 ‘김영한의 60분 성공학 특강’ CD를 부록으로 넣은 것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동시에 오픈해 책에 담지 못한 정보를 신고 독자들의 커뮤니티를 확보함으로써 살아있는 책을 만드는 과정 또한 그랬다.

“책이 나오기 직전에 하현주 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 많이 화나게 했으니까 꼭 성공해야 한다’ 구요. 하지만 이미 전 이 책을 통해 성공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으니까요.”

김 교수는 콘텐츠 비즈니스로서 책을 활용할 계획이다. 단지 책이 아니라 책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성공 가능성을 찾아 나서겠다는 뜻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